

미국 팝의 거장 프린스 사망... 향년 57세

음악으로 모든걸 변화시킨 선지자 이제 전설로

첸허슨 자택서 숨진채 발견 당시 건강상태 좋지 않은 듯

마이클 잭슨·마돈나와 함께 1980년대 최고 스타로 군림 '퍼플 레인' 등 명곡 남겨

1980년대를 풍미한 미국 팝스타 프린스가 지난 21일(현지시간) 사망했다고 그의 대변인 이베트 노엘 슈어가 밝혔다. 슈어는 프린스가 이날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외곽에 있는 첸허슨의 자택에서 숨이 끊어진 채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프린스는 지난 15일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공연을 마치고 비행기로 이동하다가 몸이 불편해 비상착륙 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바 있다. 미니애폴리스 출신인 프린스는 1978년 1집 앨범 '포 유'로 데뷔해 바로 '아이 워너 비 유어 러버' 등을 히트시키면서 스타덤에 올랐으며 1980년에는 '1999'와 '퍼플 레인' 등 앨범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본명이 프린스 로저스 넬슨인 그는 독창적이고 압도적인 사운드를 자유자재로 연출한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천재적인 음악성을 보여줬고 화려한 기타 연주로도 사랑을 받았다. 프린스는 2004년 흑인 펑크와 백인 록을 통합했다는 찬사를 받으며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영광을 안았다.

▲ '굿바이 프린스', 잭슨·마돈나와 80년대 주름잡은 별



57세를 일기로 지난 21일(현지시간) 돌연 사망한 프린스는 마이클 잭슨(1958~2009), 마돈나(58)와 함께 1980년대를 주름잡은 미국 팝의 전설이다. 특히 당시 '팝의 황제'로 군림한 잭슨의 아성에 유일하게 도전했다. 흑인에 나이도 같은 프린스와 잭슨은 항상 비교의 대상이었다. 황제라는 별칭에서 엿볼 수 있듯 잭슨이 생전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백인의 록·컨트리 위주로 편성된 대중음악 시장에서 흑인의 R&B 팝 지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잭슨의 그림자에 가려졌지만 프린스 역시 그에 못지 않게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음악을 선보였다. 키가 불과 157cm에 불과했지만 무대 위에서는 항상 거인이었다. R&B는 물론 펑크, 로큰롤, 블루스 등 폭발적인 에너지로 다양한 음악장르를 중횡무진했다. 특히 유려한 블루지한 사운드의 기타가

1958년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태어나 재즈 뮤지션이었던 부모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했다. 중학교 때부터 자신의 밴드를 만들어 활동하던 그는 1978년 데뷔 앨범 '포 유(For You)'를 발표했다. 보컬은 물론 그가 악기까지 연주한 이 앨범으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프린스가 첫 주연을 맡은 영화(1984)의 동명 타이틀 사운드트랙이자 6집 앨범인 '퍼플레인'은 그를 국제적인 스타덤에 올랐다. 24주 연속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다. 2009년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잡지 '롤링 스톤'이 뽑은 '역대 최고의 앨범 500'에 뽑혔으며 2012년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있는 '내셔널 레코딩 레지스터'에 영구 등재됐다. 특히 유려한 블루지한 사운드의 기타가

인장처럼 박힌 타이틀곡 '퍼플 레인'은 세기의 명곡으로 통한다. 프린스는 앞서가는 뮤지션이기도 했다. 주요 뮤지션으로는 처음으로 인터넷이 활성화되기도 전인 1997년 앨범 '크리스탈볼(Crystal Ball)'을 온라인에서 예약 판매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사운드트랙을 포함해 30여장의 정규 스튜디오 앨범을 발표, 1억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7개의 그래미 어워드를 안았다. 2004년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웬 도브스 크라이'(1984), '벳츠 고 크레이지'(1984), '키스'(1986), '크림'(1991), '더 모스트 뷰티풀 걸 인 더 월드'(1994) 등이 대표 싱글이다. 지난 2014년 솔로작 '아트 오피셜 에이지(Art Official Age)'와 백 밴드 '서드 아이 걸'과 함께 한 '플렉트럼일렉트럼(PlectrumElectrum)' 2장을 동시에 내놓았던 프린스는 올해 새 앨범 '히트 & 런 앨범(Hit & Run Album)' 발매를 앞두고 있었다. 프린스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아이튠스 앨범 차트에서는 '퍼플 레인'을 비롯해 그의 앨범들이 상위권에 진입했다. 애도의 물결도 이어지고 있다. 프린스와 친분을 나눈 마돈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시절 프린스와 함께 공연한 사진을 게재했다. "프린스는 세상을 변화시켰다"며 "그는 진정한 선지자다.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추모를 덧붙였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프린스는 창조적 아이콘이다. 당대의 가장 재능 있는 음악가"라고 애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스티브 윈더와 함께 프린스를 백악관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대사습놀이 자원봉사자 모집

전주대사습놀이는 대희기간인 5월 27~30일 동안 자원봉사 할 '사습'을 오는 5월 4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경영지원팀 30명, 공연지원팀 25명, 행사운영팀 25명으로 자원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대학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전주대사습놀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 j-in@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문의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063-252-6792)에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 수공예품, 이탈리아 피렌체 박람회에 참가

한국전통문화전당, 내달 1일까지 한지 등 30종 50여점 작품 선보여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이달 23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탈리아 피렌체 포르테짜 다바소에서 열리고 있는 '피렌체 국제수공예박람회'에 참가해 전주의 수공예품을 선보인다. 이번 박람회에 전당은 '규방과 사랑방'이라는 테마의 특별부스를 운영한다. 규방 코너에는 전주의 우수 무형문화재와 수공예품, 한지 등 총 30종 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과거 실제로 사용했던 한지그릇, 물통 등 원형 그대로의 한지 생활용품 및 이를 재현한 재현작도 함께 전시된다. 또한 사랑방 코너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선자장 김동식 명장이 피렌체 현지민들과 박



람회 관람객들을 위해 함축성을 직접 제작하는 시연회도 진행한다. 아울러 전당은 피렌체시와 상호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기 위해 국제교류부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오페라산바리아, 파피로 등 유명 공연 5곳을 방문해 민간교류의 교두보도 구축한다. 전당은 이번 참가를 계기로 전주가 전통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공예품 장인들 간



민간교류도 활성화해 유·무형 문화예술자산을 갖춘 아시아권 수공예 거점지역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한편 피렌체 국제수공예박람회는 1931년 시작한 80년 전통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공예품 전문 행사로 50여개국 300여건의 수공예품이 출품되며, 12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다. /정해은 기자

여명카메라박물관, 프로그램 2개 추가 운영

한옥마을 내 위치한 여명카메라박물관이 올해는 길 위의 인문학 이의 '문화가 있는 날'과 'KB박물관 노닐기'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한다. '2016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사립박물관 협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춘 프로그램이다. 이는 정규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 및 박물관 관련 진로 체험 교육, 해설사의 전시해설 및 한지시연을 이용한 LED빛 상자를 만드는 체험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한국사립박물관 협회가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박물관에 방문하면 한지시연작자 만들기를 누구나 무료로 경험할 수 있다. KB은행이 후원하는 '박물관 노닐기'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한지인화체험 및 전통다식 만들기 체험을 한다. 이는 학교, 사회복지단체, 지역아동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참가모집은 매월 선착순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여명카메라박물관(063-232-5250)에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4월 25일)